

있는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저 많은 것들이 보이는 않지만, 특히 나처럼 바깥으로 드러내기보다 자기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모양새를 드러내곤 하지. 우리 집 문 앞을 흐르는 강은 숲을 가로질러 일직선으로 흐르는 덕분에 긴 수로를 선사해주고,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잎이 달린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운다네. 타타마카나무, 흑단나무, 여기서는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나무, 올리브나무, 계피나무 따위가 있지. 또 작은 수림을 이루는 야자나무가 여기저기서 자라는데, 이 나무들은 꼭대기에 야자수 꽃다발을 이고서, 100피에도 넘게 길쭉하고 험벗은 몸통을 드러내, 마치 하나의 숲 위에 심어진 또 다른 숲처럼 다른 나무들 위로 솟아있다네. 이 야자나무 수림에는 각양각색의 잎이 무성한 리아나덩굴이 달라붙어 있어,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스스로를 엮어 휘감고 있는데, 그것이 한쪽에서는 꽃으로 이루어진 아치형 통로를, 다른 한쪽에서는 초목으로 뒤덮인 긴 회장을 이루고 있지. 이런 나무들은 대개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데, 그 향이 옷 자체에 너무 강렬하게 배기 때문에, 숲에서 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나도 방금 숲을 가로질러 나온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일세.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되면, 자네라면 아마 그 나무들이 반쯤 눈에 덮여 있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네.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, 뱃빛 외래종 새들이 불가사의한 본능에 이끌려 광활한 저 바다 너머에 있는 미지의 고장에서 날아와